

눈물 젖은 '할머니의 털신' 한 짝



보성군 득량면 60대
장애 아들 대신 손녀 키워
중3 손녀 학교길 걱정
1.5km 버스정류장에 매일 마중
굴삭기에 치이고 운전사는 뺑소니
10여년간 기다리던 할머니는 없고
길가에 나뒹구는 털신 한 짝
손녀가 찾아 경찰에 신고
사고당한 할머니 발견에 통곡

임모(69·보성군 득량면) 할머니는 지난 24일 오후 여느 때처럼 손녀 이모(15·중학교 3학년)양을 마중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임 할머니는 학원에 갔던 손녀로부터 '버스를 탔다'는 전화를 받은 터였다.

마을에서 '손녀바라기'로 통하는 임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는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손녀를 기다리는 것이다. 외진 시골마을인 탓에 집과 버스정류장은 1.5km나 떨어져 있고, 그 흔한 가로 등 하나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 걸음으로는 30분 이상 걸리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할머니에게 손녀 이양은 '하늘이 준 보물'이면서도 '아픈 손가락'이다. 농아이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 부부는 이양을 낳은 뒤 스스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단 둘이 살아온 임 할머니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양을 키

우면서 부모 이상의 사랑을 줬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1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 없이 마을 버스정류장에 나가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덕분에 이양은 구김살 없이 예쁘게 성장했고, 할머니 곁을 한 순간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둘 사이도 애뜻했다고 한다.

영하의 날씨를 보던 24일 그날도 그랬다. 할머니는 오후 6시 30분께 마을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유난히 밭 시린 것을 싫어했던 할머니는 살을 파고 드는 겨울바람을 견디기 위해 털신발도 챙겨 신었다. 남편이엔 '손녀 언능 데오와서 맛난 저녁 같이 먹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께 마을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손녀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까 너 데리러 나갔는데..."라는 말이 되돌아 왔다.

이양은 갑자기 불길한 마음에 집 방향으로 내달렸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떨어져 있는 털신 한 짝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할머니 것이었다. 이양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실종 신고를 한 뒤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할머니, 어디있어'라고 울부짖었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때 마침 할아버지도 현장에 도착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와 함께 도로 옆 비탈길(6m·경사 70도)을 샅샅이 3m 지점에 있는 나무가지에 할머니가 걸쳐 있는 게 보였다.

이양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발견 당시 희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던 할머니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큰 충격을 받은 이양은 이후 실어증 증

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임 할머니 상의에 묻어있는 기를 때를 토대로 대형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한 끝에, 사고 4시간여 만에 6t급 굴삭기 운전기사(49)씨를 검거했다.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중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둑어둑해 주변에 있던 할머니를 발견할 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굴삭기 바퀴에서 임 할머니의 옷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실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할머니가 도로 옆 비탈길에서 발견됨에 따라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좀만 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보성=정병호 기자 jusbh@

80대 노인 횡검에 경로당 불질러 2명 사망

완도서...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 당하자 격분

완도의 한 어촌마을에서 80대 노인이 경로당에 불을 내 2명이 숨졌다. 마을 할머니들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27일 완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시께 완도군 한 읍의 경로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경로당에 있던 A(84)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방화범으로 보이는 B(83) 할아버지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다음날 새벽 5시께 숨졌다. 당시 경로당에 있던 나머지 80대 노인 2명은 가까스로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

목숨을 건진 노인들은 경찰조사에서 "B 할아버지가 페트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경로당안으로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며 큰소리를 치자마자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당시 경로당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휘발유 추정 물질이 묻은 빈페트병(1.5 l)이 경로당 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방화사건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부검과 정밀 화재감

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조사결과, 숨진 A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B 할아버지로부터 A 할머니를 포함한 마을 할머니들이 경로당 등에서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B 할아버지는 화재 전날인 24일 이 같은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에 말하기 힘든 노인간 성추행 문제인데다, 남성중심의 사회성이 강하고 폐쇄된 농촌마을의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다가 화를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위사실 발언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전주시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중과 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에 관한 비판적 취지의 질문을 받아 즉시 답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

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TV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됐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15년전 연쇄 강도강간범 DNA로 20년 뒤 미 징역 20년

2003년부터 10여차례 범행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범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1996년 11월 가석방된 김씨가 또 다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죄책감 없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 광주와 대전 대학가 주택에 집입해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만을 노려 눈을 가리고 범행한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범인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김씨가 전남의 한 점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그의 DNA 정보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면서 꼬리를 밟았다. DNA 정보가 15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선거 후보 옹호·비방글 전 공단이사장 벌금형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공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4월 25일까지 SNS 등을 통해 수차례에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타인 승용차 내 차 처럼'...30대 취객 대리기사 불러 타고 가

○...술 취한 30대 가 소형마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 대리기사까지 불러 집으로 타고 갔다가 자칫 절도범으로 몰릴 뻔했는데.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25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먹자골목 거리에 서 B씨가 마트에 들리려 시동을 건 채 정

차해냈던 흰색 포르테 승용차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차량 절도 피의자로 오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와 B씨의 차량이 나란히 있던 사실을 발견한데다, 다음날 술이 깬 A씨가 뒤늦게 차량을 바꿔 타고 온 사실을 안 뒤 B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에 지수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19년 광주·전남지역 부동산시장 대전망

새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공급과잉·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세계경기불안에 따른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현명한 자산관리 비법공개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 최고의 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라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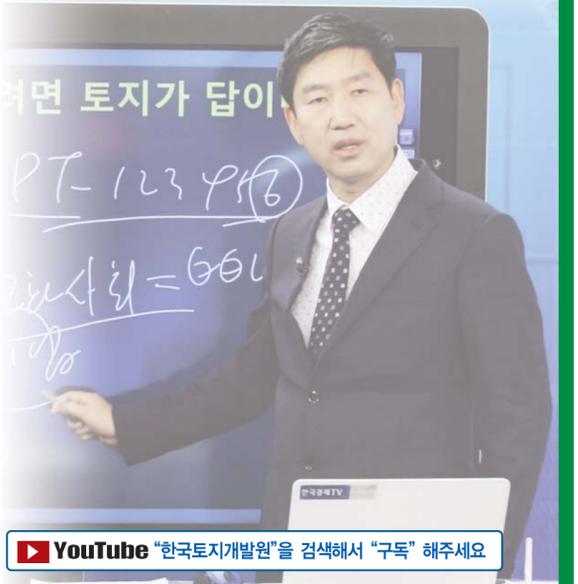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차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루역)하차 5번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담 진행



YouTube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구독"해주세요